



추석
가정예배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살전 5:13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부터 추석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도 신 경

다 같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587장 감사하는 성도여

다 같 이

- 1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찬송 부르세 추운겨울 오기 전 염려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추수 찬송 부르세
- 2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 날때 가라지고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 3 우리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 들이고 밭에있는 나쁜것 모두 소멸 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 두시리
- 4 주여어서 오셔서 우리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건져 주소서
모든성도 영원히 하늘집에 이르러 천군천사 어울려 추수 찬송부르리 아멘

성 시 교 독

106번 감사절(2)

다 같 이

인도자 :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가 족 :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인도자 :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가 족 :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인도자 :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가 족 :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불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인도자 :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이다.

가 족 :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인도자 :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가 족 :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100:1-5

설교자

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3.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설교

하늘나라 비밀번호

설교자

기도

설교자

찬송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다 같이

- 1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악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 2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 3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 4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 가는 날 천국가게 하소서
- 후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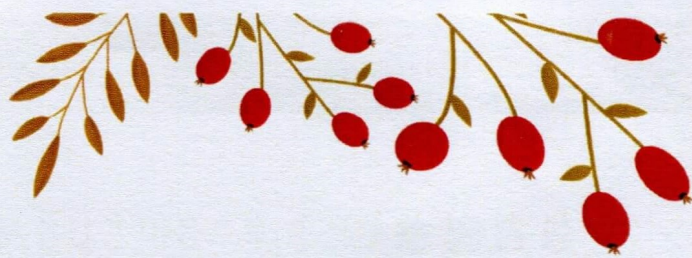
주기도문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통성찬 축복 받으세요



하늘나라비밀번호 _시편 100:1-5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비밀번호를 사용합니다.

은행 계좌, 핸드폰, 이메일, 심지어 집 현관문까지 숫자나 문자를 조합한 비밀번호 없이는 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늘나라에도 비밀번호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비밀번호는 바로 두 글자, **감사**입니다.

시편 100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목에서 이 감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감사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_시 100:4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뜰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관문은 감사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감사의 근거 하나님의 창조와 사랑 _시 100:3

우리가 감사해야 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3. 기쁨으로 찬양하라 _시 100:1-2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야말로 하늘 문을 여는 참된 열쇠입니다.

4. 영원한 감사의 이유 _시 100:5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해도, 환경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의 선하심·인자하심·진실하심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결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할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의 비밀번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